

고려아연-영풍, 황산취급 소송전... 경영권 갈등 격화되나

기존 계약 등 법정공방 확대 예상

고려아연 “일방적으로 소송 제기”
영풍 “갱신 거절, 불공정거래행위”

세계 최대 비철금속 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과 고려아연의 싸움이 새로운 소송전에 돌입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경쟁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두 기업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동지’에서 ‘적’으로 갈라섰다. 주총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배당안과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이후 고려아연이 단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과 동업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사 이전과 함께 그동안 협력관계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원료 공동구매와 영업, 위험물질 취급대행 등 제련사업 관련 협력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여기에 두 기업 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소 생산 제품의 수출과 판매를 맡아온 서린상사 경영권까지 확보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두고 영풍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법정 공방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일

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계약 갱신 거절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판단했다. 영풍은 2003년부터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황산의 보관과 관리를 고려아연 측에 맡겨 왔다.

영풍은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

게 되면 영풍은 황산을 수출할 수 없어 아연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ESG 이슈, 시설 노후화, 황산 물량 증가를 들고 있으나 계약을 즉시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영풍은 아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국내 아연 공급망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계약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사전에 이미 시설 노후화 등으로 폐쇄 필요성을 지난 4월 통보했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했는데, 영풍 측에서 과도하게 7년 이상 유예기간을 제시하며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기관 검사 결과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

와 법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비현실적 요구만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협상 대신 일방적인 소송을 반복하는 영풍에 유감을 표했다.

계약 종료일인 지난 1일 이후에도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영풍 측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았다”며 “황산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아연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는데 상장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HBM개발팀 신설

전영현 부회장 체제 조직개편
차세대 HBM4 기술 개발 착수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이날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이 팀을 통해 HBM3(4세대) 및 HBM3E(5세대)를 비롯해 차세대 HBM4(6세대)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당초 삼성전자는 메모리사업부 안에 HBM 개발 조직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전담 조직을 꾸려 차세대 HBM 연구개발(R&D)에 집중한다.

삼성전자는 첨단 패키징(AVP) 개발팀 및 설비기술연구소도 재편한다.

기존 AVP 사업팀을 재편한 AVP 개발팀이 전영현 DS부부장(부회장) 직속으로 전환됐다. 미래 핵심 기술인 3D 패키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다. 패키징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중요한 핵심 공정이다.

설비기술연구소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반도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양산 설비에 대한 기술 지원에도 뛰어든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조직 재편은 현재 HBM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각각 SK하이닉스와 TSMC에 밀리고 있는 만큼 선두 탈환 목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전영현 부회장(사진)이 DS부문을 이끌게 된 지 한달 만에 이뤄졌다.

앞서 전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며 사업 방식과 조직에 대한 쇄신을 시사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두산테스나, ‘평택 제2공장’ 짓는다

대규모 투자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가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에 나선다.

두산테스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평택 제2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고 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시스템 반도체의 신제품 관련 테스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두산테스나는 지난해 기존 공장 3개(평택, 서안성, 안성)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큰 면적의 클린룸을 설치할 수 있는 4만8000㎡(1만4500평) 규모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두산테스나는 우선 2200억원을 투자해 1만5870㎡(4800평) 규모의 공장 구축 및 클린룸 설치를 진행하며, 연내 착공해 2027년 상반기 내 준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증설 필요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증축함으로써 투자를 최적화하



두산테스나 평택 제2공장 조감도 이미지.

기로 했다.

평택 제2공장에서는 주로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고성능 시스템온칩(SoC) 등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공정 작업이 이뤄진다. 장비 배치 및 직원·차량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클린룸 내 외부 이물질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또 일반 사무실보다 8배, 병원 수술실보다 2배 높은 수준의 제진(진동에 견딤) 기술이 적용된다.

두산테스나는 자동 적재장비, 자율 이동로봇 등 중앙 관제시스템과 태양광 설비 등을 도입해 평택 제2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스마트플렉스 AH51+’ 출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대형 카고(화물)트럭, 트랙터, 덤프트럭을 위한 전용 타이어 ‘스마트플렉스 AH51+’를 국내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플렉스 AH51+는 기존 ‘스마트플렉스 AH51’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인 제품이라고 한국타이어는 소개했다.

타이어 주행 방향과 동일한 각도로 약 400m의 스파이럴코일(고강도 와이어)을 감싼 5벨트 구조를 적용해 벨트 내구성을 대폭 향상 시켰다. 또 강화된 케이싱으로 트레드 벗겨짐(버스트) 사고 위험을 줄이고, 트레드 변형 최소화와 접지 향상 개선을 통해 마일리지 성능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퓨처엠 캐나다 현지인력 직무교육

포스코퓨처엠이 캐나다 양극재 공장 가동에 대비해 현지 핵심 인력을 한국으로 불러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글로벌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섰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6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캐나다 현지 합작법인인 ‘얼티엄캡’ 현지 채용 직원 중 핵심 인력 21명을 대상으로 포항 인재창조원, 양극재 공장 등에서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2022년 5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으로 캐나다 퀘벡주에 설립해 준공을 앞둔 연산 3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현장 주임급 직원들로 3주간 포항 양극재 공장에서 생산, 정비, 품질 관련 조업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결과, 양극재 공장 시운전과 양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HD한국조선해양,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수주

유럽 선사 3286억 계약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사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총 수주금액은 한화로 3286억 원으로, 이번에 수주한 VLAC 2척은 HD현대사호에서 건조해 2028년 9월까지 인도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 건을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총 118척(해양 1

기 포함), 125억9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의 93.2%를 잠정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8척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52척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 운반선 38척 ▲에탄운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6척 ▲탱커 3척 ▲자동차운반선(PCTC) 2척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1척 ▲해양설비 1기 ▲특수선 4척 등이다.

/양성운 기자

SK그룹-EDC, 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 (캐나다수출개발공사)

중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MOU

SK그룹이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Export Development Canada)와 손잡고 청정기술,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SK는 EDC와 이 같은 내용의 ‘양사간 중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EDC는 1994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다. 수출보험과 보증, 투자

등을 통해 캐나다 자국의 수출을 지원하며, 친환경·디지털 등 정책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맡고 있다.

SK는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과 캐나다 공적 금융기관이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K는 이번 EDC와의 협력을 계기로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